

學生運動과 우리 사회의 民主變革

李 鍾 旣

(啓明大 社會學科)

1. 學生運動의 位相

개항 이래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서 청년·학생은 항상 변혁의 최일선을 지켜 왔다. 이는 근세 이래의 우리 민족사의 反帝民族運動과 社會民主化運動에서 學生運動이 가지는 독특한 역할과 지위에서 익히 나타난다. 멀리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3·1 운동, 6·10 만세 사건 그리고 가깝게는 해방 이후에 있어서의 4·19 시민학생 혁명, 6·3 운동, 부산·마산 민중항쟁, 광주 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 1988년 이래의 조국통일 촉진 운동 등 우리 민족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던 제반 운동에서는 항상 청년·학생의 선도적 역할과 자기 희생이 있어 왔다. 한국 근대사 이래로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비중과 역할은 의연 돋보이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에게 계뿐만 아니라 식민지 혹은 半식민지 상태의 제3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권을 볼 때에 1919년 5·4 운동 이래의 중국 학생운동은 중국 사회의 변혁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변혁 운동의 지도층의 상당 부분은 학생운동에서 충원되었다. 아직 공업화가 본격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농민이 사회 구성 및 사회적 생산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는 공업화 이전 사회에서 반제·반봉건 운동의

담지자로서의 청년·학생의 역할은 의례 독특한 것이었다.

이는 서구에서의 사회운동과 식민·반식민지 상태의 사회운동 및 그중의 한 유형으로서의 한국의 사회운동을 구별짓는 주요한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서구의 사회운동이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노동운동과 거의 동의어가 되어 버리고 정치적 노동운동의 이론적·조직적 지도하에 놓여 있었던 상태를 고찰할 때에 분명해진다. 제국주의 침략기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학생 계층은 문민주의의 전통과 일정하게 결부되어 그 사회의 지도 계층이라는 자각과 위신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 의식의 자각으로서의 반제민중 운동 및 새로운 사회로의 역사 발전을 추구하는 반봉건운동에서 자각된 지도 계층으로서의 학생층이 이러한 운동의 선도적 부분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80년대의 한국 사회와 같이 산업화의 단계가 상당히 발전된 단계에 이르는 사회에 있어서도 청년·학생운동은 사회운동의 가장 선도적인 부분으로서 또 가장 주요한 주력군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8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운동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회운동의 기본 역량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에 관한 인식이 광범하게 공유되었

으며, 모든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을 기축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널리 확산되었다. 이는 앞으로 노동운동이 명실상부하게 사회운동의 기축으로 확고히 뿌리 내리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민족문제가 아직 미해결인 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제국주의의 직접적 지배기에 형성되었던 민족의 '선각자적' 계층으로서의 학생이라는 위상은 오늘날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전체 국제 사회 안에서 완전히 등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에만 이러한 청년·학생운동의 민족운동적인 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 문제의 해결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민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 사회의 긴장과 갈등, 특히 청년·학생운동의 전투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서는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노동 문제와 도시 문제가 또한 폭발적 수준의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87년 7~9월에 이르는 노동자 대투쟁 이래로 임투(임금 투쟁)를 위시한 노동 쟁의는 연례화·일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년·학생 집단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민족운동과 노동운동을 위시한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 관계 설정에서 청년·학생운동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족 문제도 그 본질에 있어서 계급 문제(사회 문제)라고 사고할 수도 있고 또한 민족 문제가 가진 계급적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족 문제는 일정하게 범계급적 성격, 즉 협의의 계급성을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은 대단히 복잡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아직도 토론중에 있는 과제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운동 중 민족운동의 부문에서 청년·학생의 위치란 절대적이며 이는 1988년 이래의 조국통일 촉진 운동의 본격화 이래 더욱 그러하다.

2. 學生運動의 發展과 展開過程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운동의 원류는 일단 1960년 4·19 시민학생 혁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4·19 이전에도 해방 이후에 있었던 이데올로기 지향형 운동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6·10 단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反獨裁 民主化, 民族 自主化, 祖國 統一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운동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래의 학생운동의 직접적 계승이라고 볼 때 현재의 학생운동의 시기적 원류는 4·19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최초의 승리로서 한국 학생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학생이 선도한 민중운동의 승리라는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래 한국 정치를 지배해 온 군사정권 혹은 군사정권식 통치 수법에 저항한 학생운동은 '60년대의 6·3 운동,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거쳐서 '70년대의 민청학련 및 그 이후 반유신 민주회복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그후 '80년 5월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87년 '직선 쟁취 독재 타도'를 외치고 나선 6·10~6·29에 이르는 6월 민주화 대투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한국 학생운동은 그 시초에서 지금까지 강력한 政治 鬭爭을 그 본질로 삼아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운동은 '60~'70년대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민중' 혹은 '민중운동'과의 결합이라는 질적 발전을 모색해 왔다. 이것의 상징적 계기는 1970년 11월 13일 청계평화시장에서 일어났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다.

'70년대 이후의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분리하여서 고찰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운동의 상태가 열악하였을 때 청년·학생 부분의 선구적 역할은 한국 노동운동을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데 빠질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특히 '80년대 들어서 학생운동

출신자들의 노동 현장 진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오늘날 노동운동의 이념·조직 상태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상태에서 노동운동은 이제 외부와 끊임없이 연대하면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고 또 이 단계에 알맞은 운동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결합이라는 '70년대 후반기 이래의 현상은 이제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직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의 과제가 완전히 경계지워진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제반 억압과 문제점이 나타나는 곳은 아직도 청년·학생운동의 연대와 때로는 직접적인 현신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

'60년대 이래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70년대 이래의 민중운동 연대 투쟁에 이어서 '80년대에 한국 학생운동은 민족 자주화 운동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민족운동으로서의 선각적 인식과 자기 현신은 해방 이후 40여 년에 달하는 분단 시대, 냉전 시대에 형성된 분단시대식·냉전식 사고 방식과 인식을 깨뜨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의 통일과 민족 문제 해결의 가장 결정적 계기는 한국 학생운동에서 나왔다고 보아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특히 '88년에 시작된 학생운동 중심의 '조국 통일 촉진 운동'은 본격적 남북 교류와 민족 사이에 가로 놓인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기여를 이미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민족민주운동의 형성과 발전은 그 많은 부분이 학생운동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형성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5·16, 10월 유신, 5·17이라는 절대 폭압의 상태하에서 학생운동이 항상 얼음장을 깨는 역할을 해왔으며 다른 부문운동, 특히 노동운동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재야 운동 및 야당이 침묵할 때에 학생운동이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써 한국 사회민주화의 희망을 살려 왔고 모든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왔던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80年代의 學生運動

'80년대의 5 공화국 정부하에서 졸업정원제 실시, 중과·증원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학은 대규모의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다. 이미 '50년대 한국 전쟁의 복구기로부터의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사실 '상아탑'으로서의 대학, 민족의 '지도 계층'으로서의 대학생이라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위상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급속히 현실성을 잃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50년대 이래의 대학의 급속한 팽창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제반 하부 구조, 특히 대학 교수의 적절한 수급 문제에 큰 무리를 가져왔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신규 교수 요원이 압도적으로 미국 유학 출신에서 충원되었던 현상은 '80년대 대학가의 민족주의 성향의 급속한 확산과 연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70년대 후반기의 한국 사회는 일정한 인력 부족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제는 '50년대, '60년대의 고실업 시대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80년대 초기에 시작된 성장의 정체 및 대학의 대량 팽창은 대학생의 취업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다만 '86년부터 시작된 고졸 성장 및 국제 수지의 호전은 취업 시장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으나, 이것이 '80년대에 확대된 대학 정원을 전반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는 못했다. 따라서 졸업 후의 사회적 전망이 불투명한 다수의 대학생 계층에 있어서 '70년대와 같은 성장 이데올로기, 즉 경제 성장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성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0, '70년대와 다른 대학 사회 안의 주요한 변화는 이른바 학내 문제의 대두이다. '8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이 기본적으로 의회주의 법치국가의 파괴에 대한 항의운동이었던 것에 반하여 '80년대에 와서는 대학생 계층의 '생활상의 요구'가 정치 투쟁적 과제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원자주화투쟁' 혹은 '학원민주화투쟁'으로 불리워지는 大學 改革運動은 대학 사회 안에서 정치

투쟁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개혁운동은 유신 체제하에서의 정치 투쟁 및 노동운동과의 연대 투쟁으로 의식화된 대학생들로서는 자연스러운 발전이었다. 정치와 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고도의 투쟁성과 조직력을 갖고 수행해 나가는 학생운동이 자신의 일상적 터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반 비리와 모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역시 학생운동을 전 사회가 주목하게 만든 힘은 학생운동의 전투적 정치 투쟁에 있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전투성은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극적 희생에서 연유한다. '80년 5월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정치 투쟁은 어찌 보면 결국 광주의 청산 작업이었다. 결국 한국 사회는 1945년 이후 分斷의 克服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으나, '80년 이후는 光州의 解決이라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광주 이후 나타난 학생운동의 전투성은 특히 두 가지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금기 사항으로 유지되어 왔던 반미운동의 등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70년대까지 자유민주주의적 의회 질서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원칙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80년대, 특히 중반 이후는 여태까지의 정치·사회 체제에 관한 이념적 금기 사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한국 전쟁 이후 금지되었던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가 토론 과정에 출현하면서 '60, '70년대와 달리 학생운동 내부에는 이념적 분파가 형성되어 이의 대립이 조직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론을 둘러싼 대립 현상은 1980년 광주 이후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는 가운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이의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론화하는 것은 1985년 가을 이후 학술계에서 '사회구성체논쟁'이 특히 본격화하면서이다. 즉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그 발전 단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한국사회 변혁이론'의 골간을 결정지었다. 이 토론의 과정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를 외부적으로 규정하는 세력으로서의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가 또한 그 이후의 학생운동의 언어와 구호를 결정지은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학술계에서 또 사회운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의 성격상 이는 이론적 수준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 세력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는 현실 세계에서의 역학 관계와 상호 관련된 문제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이념적 논의는 학생운동 안에서 지식인 특유의 관념적 성향과도 결부되어 학생운동 내부에서 여러 가지 편향을 낳게 하였으며, 이는 '87년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대중적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특히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87년의 6월 민주화 대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지극히 광범한 대중 동원 능력은 아직까지는 '직선제 개헌' 요구와 같은 일반 민주주의적 사항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놀랄 만큼 광범한 시민의 참여와 능동성에 힘입어 1987년 12월에는 유신 선포 이래 최초의 보통 선거에 입각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생운동 및 제반 사회운동의 기대와 달리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간 군부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던 민간인 출신 후보들은 패배하였다. 따라서 이 선거는 '86년 이래의 최대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직선 쟁취 민주화운동의 실망적 결과로 끝났다.

이 선거 이후 학생운동권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취했던 각 입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6공화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8년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는 '88년 6·10 남북학생회담의 제의 및 이의 성사 투쟁이었다. 또한 1988년 9월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가 또한 당시의 시의에 맞는 주요 운동 목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6·10 및 8·15 남북학생회담 시도 및 '공동올림픽 개최 투쟁'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학생운동의 주요 목표로 등장하였다. 즉 의회민주주의적 법치국가를 회복하려는 운동에서 조국 통일, 민족자주화라는 민족 문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민족 문제에서 분단 이래의 현상을 타파하려는 운동은 한국 전쟁 이래의 마지막

남은 금기인 북한 및 북한의 정치 이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가져왔다. 이는 또한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위 '북방외교', 즉 사회주의권에 대한 일정한 개방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8, '89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북한에 대한 과감한 개방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였다. 이는 주로 '광주 문제'와 '5공 비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회와 사회에서의 논쟁 속에서 6공화국 정권이 수세적 위치에 몰려 있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989년 3월 전민련 고문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평양 방문에 뒤이어서 전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에 대하여서 정권의 강경한 대응이 다시 발동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학생운동의 투쟁으로 '87년 직선제 개헌 시기의 민주화와 사회 평화의 도래라는 바램은 현재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문제,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 교직원들의 문제는 점차 그 심각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서 '80년 사태와 같은 사회적 대중들이나 혹은 '87년과 같은 정치적 타협이 다시 이루어지느냐가 현재의 정치적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아마도 계속하여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 세력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4. 現在의 方向 定立

제3세계 일반과 한국에서 그간 학생운동이 가

져왔던 정치적·사회적 성과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운동도 겉려하고 차분하게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丙省 하여야 된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이제 냉전과 분단 시대의 그 마지막 장애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는 고도로 복잡하고 중첩된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학생운동이 선구적으로 혼로 존재할 때와 달리 오늘날 노동자, 농민 등의 민중운동이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고 교사, 사무 노동자, 여성 등의 제반 부문운동 또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즉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 자기 운동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대중의 자기 발전의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역사적 위상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싶다.

특히 고도의 생산력의 발전과 역시 고도의 자본주의적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아직 미해결의 민족 문제를 올바르게 해명하고 이에 근거한 자기 위상의 설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제를 놓고 '85년 이래 한국 사회과학계와 사회운동권은 고민과 모색을 거듭해 왔으며 학생운동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90년대를 맞아 이제는 논의의 종합과 아울러 실천운동의 새로운 자기 정립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할 수 있다. *